

#	1																		
또	로	롱		떠	리	리	링	-											
시	끄	럽	게	울	리	는		휴	대	전	화	의		알	람		소		
리	에		눈	이		절	로		떠	졌	지	만	,		몸	은		외	부
자	극	을		거	부	하	는		듯		침	대		위	에	서		왼	쪽
과		오	른	쪽	으	로		미	적	됐	다	.							
		‘	싫	다	.	’													
	처	음		든		생	각	이	었	다	.		눈	을		한		번	
깜	빡	거	렸	을		때	는	낮	선		천	장	이		눈	에		뻐	
혔	다	.																	
	아	-																	
	깨	달	음	이		뒤	이	었	다	.		내	가		대	학	에		입
학	했	고	,		송	도	에		가	방	을		바	리	바	리		들	고
기	숙	사	에		입	소	했	다	는		사	실	이		기	억	났	다	.
분	명		오	늘	은		주	말	이		아	니	었	다	.		마	지	막
저	녁	의		여	운	을		느	끼	겠	다	며		동	기	들	과		배
달		음	식	을		시	켜		먹	었	던		기	억	이		선	명	하
다	.		오	전		10	시		45	분	.		나	의		상	념	은	
시	간	을		확	인	한		순	간		멈	춰	버	렸	다	.			
		“	샤	갈	,		조	졌	어	요	!	”							

어젯밤, 킁킁거리며 본 릴스 대사를
 뱉으며 용수철 반동을 하는 것처럼 문
 자 그대로 ‘팅겨’ 일어났다. 천 원
 의 아침밥을 먹으며 우아하게 등교 준
 비를 하려던 나의 꿈은 어디로 사라졌
 는가? 11시 수업인데 15분 전까지 기
 숙사에 있는 나의 모습에 한숨이 나왔
 다.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8시까지
 등교를 한 것인지, 그때의 자신에게
 되묻고 싶었지만, 지금 자신은 그런
 것을 되묻기에도 사치스러운 실정이었다.
 “입학하고 첫 수업 지각 위기라니!”
 초췌한 얼굴, 살짝 부은 얼굴과 렌
 즈를 킁 시간조차 없어서 안경으로 적
 당히 가린 모습. 그런 몰골에 한껏
 꾸며보고 싶어서 대학 붙은 날 부모님
 께 즐라서 얻은 코트를 입으니 엘리베
 이터 사이에 있는 거울로 보이는 모습
 이 가관이었다.

심지어 수업은 채플이었다. 2기숙사에서
 채플 수업이 열리는 종합관까지는
 거리가 상당하다. 서둘러 종합관으로
 발을 옮겼다. 대형 수업이라 그런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학생들의 기차 행
 렬 같은 모습에 적당히 끼어들어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다행히 지
 각은 아니었다.
 방금까지 자다가 일어나서 수업이 졸
 리지는 않았었다. 그렇지만 수업을 얹전
 히 듣지는 않았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교목님의 말을 하나씩 기억하려고 했다.
 좋은 말씀인데 왜 마음만 동하고 머리
 는 움직이지 않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펜을 잡아서 글씨 쓰라고
 해도 글씨도 못 쓸 것 같아.’
 자신의 상태를 냉정히 판단해 보니,
 지금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도
 알 것 같았다. 공부하지 않은 지 너
 무 오래된 것이었다.

목을 쭈욱 - 늘리고, 고개를 좌우로
 살짝 돌려본다. 옆자리에 익숙한 얼굴
 이 있다. 어디서 보았더라?
 ‘단과대 OT? 과 OT? 새터?’
 뒤편에서 본 얼굴 같기도 하고, 아
 닌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을 해보았지만, 답이 나오지 않
 았다. 인스타그램도 교환한 사이 같은
 데, 스토리 어딘가에서 얼굴을 보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뿌옇게 머리에 흘
 어진다.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는
 상대에게 먼저 다가가지는 못할 것 같
 으므로, 다시 고개를 정면으로 돌리려
 던 찰나, 눈이 마주쳤다.
 “안녕”
 금붕어처럼 빼금거리는 입 모양을 조
 용히 읽었다. 나를 알아보네? 신기하
 다고 생각하면서 답례하려는데, 교목님
 이 말씀하셨다.
 “채플 1주차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수기 작성 용지는 ~ ”
 우당탕. 풀어둔 짐을 챙겼다. 아까
 그 옆자리 분과 다시 눈이 마주쳤다.
 “혹시 수연님 아니신가요? 저희 새
 터 뒤풀이에서 만났어요!”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살짝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나 보다.
 살짝 얼굴을 찡그렸는지, 옆자리 분은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친절하게 소
 개해 주었다.
 “저는 선지현이라고 해요, 음 - ”
 지현이 소매를 걷혀 시계를 보았다.
 11시 28분. 일어나고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못한 상태였다. 배에서 무
 슨 소리가 울리지는 않을지 걱정하던
 찰나, 지현이 시계에 고정되었던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럼 수연님, 저희 학식같이 먹을
 래요? 저도 개강하고 아직 동기들과
 친해지지 못해서요.”

는 되어 있지 않고, 마음은 아직 어린 것 같은 나였다. 대학이 아닌 교실에 앉아 자습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 모습의 나였다. 지현이는 내 생각을 아는 것인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해 보았다며 말을 해주었다. 어느 순간 말을 놓고 있었다. 친화력이 대단한 친구인 것 같다.

“.. 하 여튼 이곳 학식 정말 맛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짧아진 말, 살짝은 가까워진 친구 사이와 나의 관계, 대화에 집중하느라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 맛이 없는 카르보나라 등이 어우러진 점심이었다.

하루의 수업이 끝난 저녁.

또롱 -

핸드폰 알림음에 반사적으로 눈이 돌아갔다. 메신저 알림이었다. 들어가

보니 과 잡담방에서 학생들끼리 이야기를
 를 나누는 것 같았다.
 “오늘 노상할까요?”
 나는 가장 마지막에 올라온 채팅을
 천천히 읽었다. 룸메 하나 없는 기숙
 사 방, 일 층 침대에 비스듬히 걸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채팅을 읽다가
 눈에 걸린 단어였다.
 ‘첫 노상 아닌가? 그냥 몸만 나오
 면 되는 것이겠지?’
 설렘을 가득 앗고 진리관 앞 노상
 테이블로 이동했다. 새까만 밤하늘에
 달이 흐트러지듯 무너지고 있었다. 일
 링이는 달 주변에 번지듯이 흩어진 달
 무리가 우중충한 비를 예고했지만, 송
 도의 밤은 깊었고, 우리는 비를 맞아
 도 소주를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막 개강한 새내기였다.
 아직 술이 돌기 전의 노상 테이블에
 서, 과 동기 중 한 명이 할 말이

있다면서 살짝 목청을 높였다.
 “과팅 나갈 사람?”
 “어디?”
 “남자? 여자?”
 “오, 벌써 과팅을 잡아?” 그 동
 기는 지금 잡담방에 정보를 올렸다면 서
 한 번씩 봐달라고 했다.
 ‘행정학과와 미팅할 여학우 3명 구
 합니다.’
 # 2
 손가락이 멈췄다.
 ‘행정학과...?’
 낯설면서도 어딘가 끌리는 단어였다.
 대학에 오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내
 삶과 접점이 없었던 단어. 그런데 지
 금은, 그저 미팅을 하게 될 지도 모
 르는 상대 학과라는 이유만으로 이상하
 게 신경이 쓰였다.
 지현이도 내 옆에서 휴대폰을 들여다

보고 있었었다.
 “수연아, 너 할 거야?”
 나는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다.
 이상하게도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이게 그건가... 대학생 느낌?’
 고등학교 때까지의 나는 ‘미팅’ 이라는 단어를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했다.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는, 나랑은 상관없는 이벤트. 그런데 지금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였다. 꿈만 같았다.
 “... 할까?”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이였다.
 지현이가 눈을 크게 뜨더니 웃었다.
 “오케이, 그럼 나도 할래.”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리는 거의 동시에 주선자와의 개인 채팅창에 들어갔다.
 ‘이미 다 차버렸으면 어떡하지? 늦

서로 어색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형식적인 첫인사.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약해뒀던 안쪽
 룸 자리로 이동했다.
 코코스키 룸 내부는 생각보다 밝았다.
 ‘술집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감성
 있는 식당 느낌? 너무 밝아서 내 얼굴
 이 잘 보일 것 같네.’
 자리에 앉고 나서야 진짜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자기소개가 이어졌다.
 이름, 학과, 간단한 취미.
 내 차례가 왔다.
 “저는 수연이고... 음, 그냥...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왜 이렇게 평범하게 말했지?’
 조금 아쉬웠다.
 그때였다.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맞은편, 오른쪽에 앉아 있던 남자였
 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아... 그냥 장르 안 가리고 다 보
 는데...”
 “최근에 본 거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질문이 이어졌다.
 대화가 끊기지 않았다.
 ‘뭐지... 편한데?’
 다른 상대 남자들과는 웃고 떠드는
 소리가 섞여 잘 집중되지 않았지만, 이
 상하게 그 사람과의 대화는 또렷하게
 들렸다.
 “저는 민재라고 해요.”
 아, 민재.
 머릿속에 이름이 또렷하게 박혔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다.
 처음의 어색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술

네 앞 클로버 모양 키링을 올려둔 상태였다.
 이름이 유리랬나, 이름과 잘 어울리는
 소지품이었다. 그에 반해 나는 ..
 내용물이 샌 낡은 틴트를 바라보니 왠
 지 초라해졌다.
 ‘자 이제 눈 뜨고 소지품 골라주세요.’
 지현이가 검지로 식탁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민재가 먼저 눈을 뜨고,
 그 옆의 남자들이 마저 눈을 떴다.
 분명 자기소개 때 이름을 들었는데 잘
 기억나지 않았다. 남자들이 소지품을
 고르는 사이, 슬쩍 미팅 단톡방의 이
 름을 보았다. 민재의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성현, 왼쪽에 앉은 사람이 주
 원이었다. 성현은 짧은 스포츠머리에
 시원시원한 인상이었고, 주원은 반대로
 약간 긴 머리에 순해 보이는 인상이었
 다. 다행히 둘이 특징이 달라 헷갈리진
 않았다.

혼자 이름 맞추기를 하고 있는 사이,
 남자들이 소지품을 모두 가져갔다. 정
 신이 다른데 팔려 누가 내 소지품을
 가져간지도 모른채 지현이의 말에 따라
 일어나서 자리를 바꾸었다. 공간이 좁
 아 자리를 바꾸면서 민재와 손이 스쳤
 다. 손바닥이 미끄러지듯 비벼지며 손
 의 온기가 전달되었다. 너무 순식간이
 라 손을 일부러 땄 필요도 없었지만,
 맞닿았던 손을 다른 손으로 붙잡으며
 혼자 움츠러들어 자리에 앉았다. 자리
 바로 맞은편에 민재가 앉고, 양 옆에
 는 각각 성현과 주현이 앉았다. 민재가
 내 틈트를 고른 탓이었다. 맞은편의 민
 재와 눈이 다시 한 번 마주쳤고, 이
 번엔 시선을 돌려 피해버렸다.
 “이제 귓속말 게임 할까요? 아,
 그리고 이제부터 반말하면 한 잔씩 마
 시는 걸로 할게. 계속 높임말하면 어
 색하잖아.”

지현이가 말했다. 학기 초라 미팅
 경험도 별로 없을 텐데 능숙했다.
 “어, 그럼 지현이가 먼저 마셔야
 하는 거 아니야? 방금 높임말 했는데.”
 민재였다. 웃으면서 지현의 잔에 술
 을 채우는 게 퍽 자연스러웠다. 그에
 지현이 장난스레 눈을 흘기며 술을 마
 션다. 나도 괜히 물컵에 물을 따라
 마시며 휴대폰을 봤다. 딱히 연락이
 온 건 없었지만, 민재와 지현이 대화
 를 주고받는 사이 뭐라도 해야 할 것
 만 같았다. 술에 취했을 때 열이 오
 르듯 어색함이 올랐다. 그때 지현이
 껏속말 게임을 시작했다. 지현의 첫 질
 문 상대는 나였다.
 “여기서 가장 술 잘 마실 것 같은
 사람은?”
 다행히 첫 질문이라 수위가 낮았다.
 고민 없이 성현을 지목하자 나와 지현
 을 제외한 모두가 술을 마셔 질문이

공개되었다. 민재가 약간 허탈한 웃음을 흘리자 지현이 곧바로 너에게는 수위가 센 질문을 하겠다고 응수하였다.

이어서 성현이 유리에게 무어라 질문하였고, 유리가 잠시간 당황하더니 고민 끝에 주현을 지목하였다. 민망한 듯 벌써부터 세계가는거냐며 의자에 눕듯이 기대었다.

유리의 반응에 다시 모두가 술을 마셨고, 이내 질문이 공개되었다.

‘가장 호감이 가는 사람은?’

질문을 한 성현이 킁킁거리며 말했다.

“꼭 이성적인 호감이 아닐수도 있잖아. 인간적인 호감일 수도 있지.”

성현의 뉘웃음은 해명에 웃으면서 맞장구를 친 주원이 다시 나에게 질문하였다. 질문하기 전부터 의미심장하게 웃고 있길래 불안했는데, 역시 수위가 높은 질문이었다.

“가장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은?”

질문을 듣자마자 떠오른 건 민재의
 얼굴이었지만, 지목했다가 질문이 전체
 공개라도 되면 안 그래도 어색한 자리
 가 더 어색해질 것 같았다. 그렇다고
 민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목해서 엉
 뚱하게 엮이는 것도 싫었다. 미간을 찌
 찌푸리며 고민하는 기색을 보이자 지현
 이 말했다.

“괜히 고민하면 더 진심같아 보이는
 거 알지? 그냥 빨리 고르고 넘겨!”

그에 민재를 지목한 다음 재빨리 덧
 붙였다.

“그냥, 맞은편에 있으니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현과 민재가
 서로의 잔에 술을 채웠다. 이내 유리
 와 성현도 분위기에 맞추어 서로 술을
 부어주었고, 유리가 장난기 가득한 미
 소를 얼굴에 띄우며 술을 마셨다.

“그래서, 질문이 뭐였는데? 나 수
 연이가 저렇게 부끄러워 하는 거 처음 봐”

지 현 이 물 었 다 . 물 잔 을 손 에 든 채 로
 몸 이 내 쪽 으 로 기 울 었 다 . 민 재 와 지
 현 이 서 로 옆 자 리 에 앉 아 있 어 둘 의 몸
 이 가 까 워 졌 다 . 민 재 는 그 것 이 대 수 록 지
 았 은 듯 가 만 히 앉 아 있 었 다 .
 주 현 이 어 깨 를 으 슥 하 며 대 답 했 다 .
 “ 여 기 서 이 상 형 에 가 장 가 까 운 사 람
 이 누 군 지 물 어 봤 어 . ”
 주 현 이 대 답 하 자 마 자 지 현 이 몸 을 원
 위 치 하 며 김 섯 다 는 듯 대 꾸 했 다 .
 “ 아 이 뭐 야 , 그 정 도 는 미 팅 에 서 맨
 날 나 오 는 질 문 이 네 ”
 이 게 미 팅 에 서 는 흔 한 질 문 이 라 고 ?
 내 가 처 음 이 라 서 잘 모 르 는 건 가 . 그 때
 민 재 가 입 을 열 었 다 . 민 재 의 입 술 이
 달 싹 이 자 방 금 지 목 한 결 로 뭐 라 하 면
 어 찌 지 , 하 는 관 한 걱 정 과 함 께 심 장
 이 술 령 였 다 . 기 분 나 썩 술 령 임 은 아
 니 었 다 .
 “ 지 현 이 는 미 팅 많 이 해 봤 나 봐 ? ”

되게 익숙해보인다.”
 순간 곧추세우고 있던 등에 긴장이
 탁, 풀리면서 얼굴이 환해졌다. 뭘
 기대한거야. 처음에 나와 영화에 대해
 떠들었던 것이 무색하게도 지금 민재의
 관심은 지현에게 쏠려 있었다. 적어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지현이 민재를 약하게 치며 뭐가 익
 숙하냐며 툭툭거렸고, 민재는 그런 지
 현을 놀렸다. 표정이 밝았다. 나랑
 영화 애길 할 때는 어땠더라. 그냥
 맛장구만 쳐주고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한 건 민재가 저렇게 즐거워하진
 않았었던 것 같다.
 두서없이 흐르는 생각들이 머리를 어
 지럽혔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 때문
 에 기분이 이렇게 달라지는 게 바보같
 이 느껴졌지만, 미팅이라 그런거라며
 애써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며 넘겼다.
 그래, 어차피 경험삼아 나온거였잖아.

너무 몰입하지 말자, 하며 혼자 마음을
 을 다잡았다.
 혼자 생각에 빠져있는 새 게임이 꽤
 진행되었는데, 분위기를 살펴보니 이미
 유리와 주현 사이 묘한 분위기가 형성
 된 듯싶었다. 성현은 둘을 밀어주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고, 민재와 지현도
 마찬가지로 믿고 싶었지만, 둘 사이
 에는 여전히 기류가 흐르는 것 같아
 보였다.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있다. 군중
 이라기에는 민망할 수준의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은연 중에 남아있는 씩씩함은
 짝을 찾지 못한 모든 동물이 으레 그
 령듯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경험을
 위해 나온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점차 줄어드는 자신을 향한 지목, 자
 신을 빼고 모두가 웃고 떠드는 화목한
 분위기에 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그
 저 재미를 위한 한 순간일 뿐이라고,

변명만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다. 일어나기로 결심한
 건 그때였다.
 “나 오늘까지 과제가 있어서 먼저
 가 봐야 할 것 같아. 다음에 또 만나
 자.”
 짧은 배웅을 뒤로하고 나오는 길에
 들린 건 아까와 다름없는 분위기의 웃
 음소리였다. 그들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
 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수연
 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지나가는 사
 람들의 시선이, 대화하는 소리가, 웃
 는 소리가 전부 자신을 향한 것만 같
 았다. 그리고 수연은 잊고 있었던 사실
 을 다시금 떠올렸다.
 ‘아,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기대
 할 필요도 없었어.’
 몇 가지를 포기하면 되는 일이었다.
 수연은 다시금 현실을 떠올렸다. 대학에
 진학한 뒤 달콤한 환상에 살았었다. 연

애를 해 볼 수만 있을 것 같다는 착각.
 중고등학교 때의 자신은 연애에 대한
 가능성도, 희망도 전혀 없었음에도, 대
 학에 들어와서는 뭔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했었던 건 학기 초라는 분위기에
 휩싸인 수연 자신의 망상이었다. 민재의
 탓도, 그 어떤 다른 사람의 탓도 아
 니었다. 누군가의 탓으로 돌릴 거면
 그것은 스스로의 때문이었다.
 번식욕이라는 건 연애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란 포장지에 잘 감싸진 채 청춘
 의 모두에게 찾아오기 마련이다. 수연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 욕망이 봄이라는
 정취와 잘 맞물리면 수연과 같은 이들
 에게 한 번쯤 희망을 주곤 한다. 물론
 잠깐 느꼈던 기대감은 곧이어 냉혹한
 현실의 칼날에 의해 산산히 조각난다.
 어쩔 수 없는 섭리와도 같은 것. 괜한
 설렘을 더 느끼고 싶지 않아졌다.
 수연은 이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자

신이 증오스러웠다. 거울을 들여다봤다.
 마음에 드는 외모일 리 없었다. 화장품
 을 두껍게 발라도, 옷을 최대한 잘 입
 어봐도 불쾌한 골짜기를 형성하는 외모.
 이리면서 마치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라
 도 되는 양 연애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3월 그 잠깐의 시간을 원망하
 기도 했다.
 그러나 이견 수연 자신의 문제라는
 걸 그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유전자에 새겨진 생명체로서의
 본능. 추잡한 본연을 예쁘게 포장하여
 뇌에 전달하는 그 과정도, 그걸 곧이
 곧대로 느끼는 자기 자신도 혐오스러웠
 다.
 문득 수연은 민재에게 미안함을 느꼈
 다. 아까 처음 만났을 때 맞장구를 쳐
 주던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다. 분명 즐
 거워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그저 처음
 만난 사람에게 대해 모두가 차리는 예의

정 도 의 사 회 적 반 응 . 그 런 반 응 을 감 정
 이 담 긴 표 시 로 해 석 했 던 자 신 이 부 끄
 러 웠 다 . 자 신 의 감 정 으 로 인 해 민 재 가
 불 편 했 으 면 사 과 를 하 는 게 맞 았 다 . 그
 러 나 수 연 은 사 과 를 하 는 행 위 조 차 민
 재 가 불 쾌 함 을 느 낄 것 이 라 며 그 에 게
 다 가 가 지 않 는 것 을 택 했 다 . 상 대 쪽 에
 선 급 이 맞 지 않 는 사 람 이 괜 한 수 작
 질 을 부 리 는 것 이 라 생 각 할 가 능 성 이
 높 았 기 때 문 이 었 다 .
 차 라 리 그 들 이 자 신 에 게 무 관 심 했 으 면
 좋 겠 다 고 , 수 연 은 생 각 했 다 . 그 들 이 자
 신 에 대 해 이 야 기 하 며 비 웃 고 조 롱 하 는
 상 상 만 해 도 수 연 은 견 디 려 수 없 을 것
 같 았 다 . 대 학 에 와 서 도 이 런 운 명 을 벗
 어 날 수 없 다 면 그 야 말 로 이 모 든 것
 은 신 의 증 오 를 받 는 주 인 공 의 비 극
 서 사 시 2 막 이 라 고 할 수 있 었 다 .
 수 연 은 다 시 한 번 거 울 에 시 선 을
 쫓 다 . 이 렇 게 저 물 어 갈 수 밖 에 없 는 것

인가 싶었다. 마지막 발악이라도 시도해
 봐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몇 초 뒤의
 일이었다.
 베이스로 얼굴의 흠집들을 가렸다. 크
 레이터마냥 움푹 파이거나 튀어나온 부
 분을 덧칠해서 어떻게든 숨기려 했다.
 하얗다 못해 창백하게 보이는 얼굴에
 쿨톤 분홍빛의 색조를 올렸다. 수연은
 쿨톤을 좋아했다. 어두운 노란빛을 띠
 는 자신의 얼굴에 어울리는 톤을 부정
 하면서까지 마치 소셜 속 여주인공처럼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어울리지
 않는 추태였다.
 크고 낮은 코를 커버하기 위한 쉐딩
 을 마치고 나니 코 부분만 거뭇한 화
 장이 완성되었다. 에이블리 짝퉁 사이트
 에서 산 빅사이즈 여리여리 남심저격
 가디건을 걸치자 수연의 눈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였다. 봄날의 근거
 없는 자존감이 다시 올라간 순간이었다.

얼굴과 목의 색이 다르더라도, 잠깐의
 자존감을 채울 수 있다면 마다하지 않
 는 것이 수연의 화장법이였다.
 수연이 화장을 마치자 룸메이트가 들
 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미팅에 다녀온
 것인지 꾸민 상태였지만, 화장을 한
 상태의 수연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썩
 리지 않았다. 여타 여자들처럼 화장품에
 관한 얘기를 했다. 톤에 맞지 않는 발
 기의 베이스와 어울리지 않는 색조의
 화장을 한 수연과 그와는 정반대인 룸
 메이트가 화장품에 대해 논하는 모습은
 가관이였다. 룸메이트가 곧이어 조심히
 말을 꺼냈다.
 “저 .. 근데 수연아, 다음에는 다
 른 화장품 쓰는 게 어때? 내가 보기
 에 넌 17호보다는 25호가 더 예뻐 거
 같거든. 색조도 여름쿨톤보다는 가을웜
 톤이 정말 예뻐 거야. 아, 그렇다고
 지금이 안 예쁜 건 아닌데 그냥.”

그	말	에	내	포	된	의	미	를	읽	지	못	할				
정	도	로	눈	치	가	없	지	는	않	았	다	.				
수	연	의	사	고	가	잠	시	멈	췌	다	.					
거	울	속	자	신	이	다	르	게	보	이	기	.				
시	작	했	다	.												
“	그	래	?	조	언	고	마	워	.	좀	고	쳐				
야	겠	다	.	”												
룸	메	이	트	는	노	상	약	속	이	있	다	며				
다	시	방	을	나	섰	다	.									
다	른	한	명	도	아	직	안									
왔	다	.														
방	에	는	수	연	만	이	남	았	고	,	정	적	이			
감	돌	았	다	.												
누	군	가	는	해	줘	야	할	말	이	였	지					
만	직	접	들	으	니	실	감	이	나	지	않	았	다	.		
화	장	을	한	스	스	로	의	모	습	은	괜	찮	을	거		
라	고	믿	고	싶	었	다	.									
현	실	은	아	니	었	다	.									
생	얼	과	마	찬	가	지	로	우	스	꽝	스	러	운	모	습	.
달	라	지	지	않	는	현	실	에	눈	물	이	흐	를	뻘	한	
것	을	삼	켜	냈	다	.										
클	렌	징	오	일	로	화	장	을	전	부	지	워	냈	다	.	
다	시	돌	아	온	맨	얼	굴	은	아	까	볼	때	보	다		
처	참	했	다	.												
남	자	든	,	여	자	든	,	심	지	어	자					
기	자	신	이	든	좋	아	할	이	없	는	얼	굴	이	었		

다. 외모가 다가 아니라 는 말 들 은 잘 생 기
 고 예쁜 사 람 들 이 그 령 지 았 은 사 람 들
 에 게 하 는 표 면 적 격 려 의 말 이 라 고 ,
 수 연 은 생 각 했 다 . 외 모 만 이 문 제 가 아 니
 라 고 해 석 한 다 면 맞 는 말 이 었 다 .
 # 5 같 은 시 각 민 재 는 미 텅 의 연 장
 선 에 있 었 다 . 그 의 손 에 는 반 쯤 차 있
 는 술 잔 이 쥐 어 져 있 고 술 냄 새 와 안 주 냄
 새 가 그 의 코 를 짹 채 운 다 . 주 변 의 공
 기 들 이 정 신 없 이 울 려 대 고 여 기 저 기 서
 그 에 게 얼 굴 을 들 이 밀 며 웃 고 있 다 . ‘ 아
 취 했 나 보 네 ’ 균 형 을 잃 은 찰 나 에 순 간
 적 으 로 둔 탁 한 느 낄 이 발 끝 에 닿 았 다 .
 그 는 고 개 를 들 어 반 대 편 을 바 라 봤 다 .
 정 면 에 는 아 무 도 없 었 다 . 양 옆 을 봤 지
 만 누 구 와 도 눈 이 마 주 치 지 는 았 았 다 .
 뒤 늦 게 둘 중 한 사 람 이 그 를 바 라 보 며
 가 법 게 웃 었 지 만 그 의 시 선 은 이 미 빈
 자 리 에 고 정 되 어 있 었 다 . “ 하 아 .. ” 잔

이 부딪히는 소리가 없이 비워진다. 그의 머릿속은 어수선한 분위기에 튕겨져 나가 수줍게 앉아있던 그녀로 차오른다. 순간 당장에 영화속을 잡지 못한 후회가 밀려온다. 그녀가 본인을 지목했던 것을 떠올리며 얼굴이 빨게진다. ‘앞에 있어서 고른거잖아..’ 그는 그녀에게 호감이 있었다. ‘틴트 맞췄는데..’ 정확히는 그녀에게만.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간지럽히는 듯한 착각이 다음과 동시에 그는 맞은편의 여자들을 훑어본다. 시끄러운 술자리에 동화되어 잔뜩 취해있는 무리를 향한 그의 동공이 차갑게 반응함과 동시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 “저..는 급한일이 생겨서 가보겠습니다” “야 왜 벌써가” “뭐야 좀더 있다가” “밤새!” 모든 불잡음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자리를 벗어난 그를 시끌벅적한 거리와 대비되는 차가운 밤공기와 금방이라도 빛이 나갈

것 같지만 그렇기에 더욱 따듯해보이는
 가로등이 반겨준다. ‘지금 만나자고
 해볼까’ 시간이 늦어 부담스러울걸 알
 았지만 그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굴
 뚝같던 그는 그러한 잡다한 이유에 망
 설였지만 연락을 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오래걸리진 않았다. 핸드폰을 뒤적이며
 거리 반대편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던 그
 의 발걸음은 머지않아 멈춰선다. *인
 스타 DM * 지금 만나실래요 | ?
 시간이 늦은건 알지만 .. (작성중)
 “아니야 너 취했어!” 혹시 내일 영
 화 (작성중) ‘아 아니지 이번주말에 시
 간 .. ’ 이번주말에 약속 있으세요? 그
 가 잠시 망설인다. 순식간에 그의 심
 장이 커서보다 훨씬 빠르게 뛰기 시작
 한다. 깜빡이던 커서가 순간 점멸한다.
 “하 미치겠네” 집으로 가는 버스가 그
 를 재촉했다. 버스안은 술냄새와 담배
 냄새가 적당히 났다. 창가자리에 앉아

서 그는 창문을 멍하니 바라본다. 아
 마도 그 이유는 창문 밖 풍경보다는 다
 른 것에 있으리라. 같은 시각 달이 만
 개한 밤하늘 아래 수연은 새벽감성에
 취해있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괴
 감에, 철저한 고독에 취해 책상에 엮
 드려 세상에 뒤쳐진 절망에 잠겨들고
 있었다. 띠링. 어두운 방안에 그녀의
 핸드폰이 빛을 터트린다. 고개를 든
 그녀의 소매자락에는 이른시간부터 이슬
 이 맺혀있었다. ‘뭐지? 이시간에 연
 락올 사람이 있었나..?’ 눈물을 훔치
 며 핸드폰을 확인하자마자 보인것은 민
 재 그 두글자. 오늘 처음만난 사이였
 지만 지금 이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
 그녀의 마음을 밝혀주고있었다. 주말에
 약속은 없었다. 밀릴만큼 밀린 과제가
 신경쓰였지만 그런것보다는 그가 필요했
 다. 그러나 수연은 연락을 잠시 뒤로
 미루기로 한다. 그 순간에도 그녀는

본능적으로 남자의 마음을 얻는 법을
 알고있었던 것이다. 뜬눈으로 10분 20분
 30분 ..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동앗줄마냥 꼭
 붙잡고 연락을 보낸다. 이번 주말에는
 약속 없어요 (작성중) “하.. 조금 빠른
 데” 무의식적으로 손톱이 입을 향한다.
 그녀의 자세는 어느새 다리를 가슴앞에
 모아놓아 쪼그라들어있었다. ‘뭐 이정도
 면 충분하지’ 나름의 합리화를 마치고
 그녀는 답장을 보낸다. 그러자 번개가
 치고 곧 천둥이 울리는 것처럼 답장이
 다시 돌아온다. 영화 보실래요? 좋아
 요. 어떤거 보실래요? .. 늦은 시간도
 잊고 두 남녀는 그들만의 새벽 분위기를
 즐기며 다가오는 주말에 설레여 한
 다. 그들은 공포영화를 보기로 했다.
 수연은 이 선정에서 은근한 그의 호감을
 한번 더 느끼며 이불을 걷어챘다.
 민재는 주먹을 불끈 쥐며 그의 집앞

정류장을 지나쳤다. “어 기사님 저
내려주세요!” 그날의 마지막 버스에서
내린 민재는 집으로 6정거장을 뛰어가
야 한다.

6

주말아침, 수연은 일찍 눈이 떠졌다.
알람도 없었다. 그냥 눈이 떠졌다.
천장을 보며 잠시 멍하니 있다가, 핸드
폰을 집어 들었다. 어젯밤 민재와 나
눈 대화창이 그대로 떠 있었다. 마지
막 메세지는 새벽 두시가 넘어 있었
다.

그럼 토요일 2시에 트리플스트리트에
서 박요.

읽고 또 읽었다. 세 번쯤 읽으니
괜스레 민망해져 핸드폰을 이불 위로
던져버렸다.
“후, 진짜 가는 거야, 나”

“아 진짜요. 저도요. 그냥 그랬죠.
네.”

분명히 아까 팔걸이를 꼭 쥐고 있는
걸 봤는데, 수연은 또 웃음을 참았다.
트리플스트리트를 천천히 걸으면서 둘은
영화 이야기를 했다. 별로 무섭지 않
았다고 합의를 봤지만, 사실은 둘 다
무서웠던 장면이 있었다는 것도 결국
고백했다. 민재가 먼저였다. 그게 수
연의 긴장을 조금 풀어줬다. 유리 건
물 사이로 빛이 반사되고, 사람들 사
이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지난 번
미팅 때와 같은 장소인데, 지금은 그
때와 전혀 달랐다.

“영화 별로 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민재가 불쑥 말했다.

“왜요?”

“아, 미팅 때 영화 좋아한다고 했을 때 제가 막 질문했었잖아요. 근데 수연씨가 처음에는 잘 말씀해주시다가 어느 순간 짧게 짧게 대답하셔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인가 싶었어요.”

수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때 왜 자신이 짧게 대답한 건지. 긴장했던 것도 있고, 어느 순간 민재가 지현이와 웃고 떠드는 걸 봐버린 것도 있었다.

“그냥 긴장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저도 긴장했어요.”

“진짜요?”

“네. 미팅 많이 안 해봐서.”

“.. .. 저도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나쁜 침묵이

